

# 2025년 최신 시사용어집

## 001. 알파세대

알파세대는 2010년부터 2024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집단이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 생성형 AI 등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디지털 콘텐츠 소비와 생산에 능숙하다. 또한 글로벌 미디어 노출이 확대되면서 다문화 감수성과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두드러진다. 산업계와 교육계에서는 이들을 기술 수용·콘텐츠 소비 패턴 변화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

## 002.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으로,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 등에 대해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간접고용·하청 노동자에 대한 본사(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하청 노동자의 권한은 확대되는 반면, 원청 기업에는 교섭 부담이 한층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 003. D2C

D2C(Direct to Consumer)는 제조업체나 브랜드가 중간 유통 채널(예: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을 거치지 않고, 자사 공식 온라인몰 등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이를 통해 기존 유통채널 의존도를 낮추고, 고객 데이터 확보, 브랜드 통제력 강화, 마진 구조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가격 경쟁력, 맞춤형 서비스, 브랜드 일관성 등이 장점으로 거론된다.

## 004. 리커머스

리커머스(Re-commerce)는 중고 상품을 재판매하거나 재유통하는 시장 및 비즈니스 모델을 말한다. 기업들은 리커머스를 통해 재고 최적화, 제품 수명 연장, 친환경 경영 강화와 같은 효과를 기대한다. 소비자는 가격 접근성, 검증된 품질, 환경 친화성이라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최근 경기 침체와 고물가, 가치 소비 트렌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으로 인해 국내외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005. 플로깅

플로깅(Plogging)은 스웨덴어 ‘줍다(Plocka Upp)’와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을 하면서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환경 보호 활동이다. 플로깅은 2016년경 스웨덴에서 시작되었고 최근 탄소 저감 생활운동, 지역 커뮤니티 캠페인, 기업 ESG 프로그램과 연계되며 MZ세대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상 속에서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실천으로 확산되고 있다.

## 006. 다크패턴

다크패턴(Dark Pattern)은 온라인 플랫폼이나 모바일 앱 등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해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거나,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또는 디자인 전략을 의미한다. 일례로 구독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게 배치하여 사용자가 해지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 무료배송을 강조하면서 실제 결제 단계에서 배송비를 추가하는 것 등이 있다.

## 007. 라스트마일

ラスト마일(Last Mile)은 물류 및 유통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이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마지막 배송 구간을 의미한다. 전자상거래 확대가 확대되면서 배송 속도 경쟁, 배차·동선 최적화, 택배·퀵커머스 인프라 고도화의 핵심 영역으로 부상했다. 라스트마일은 배송의 효율성과 소비자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쿠팡, 마켓컬리, 배달의민족 등 주요 유통·배달 플랫폼들이 혁신을 위해 집중하는 영역이다.

## 008. 옴니채널

옴니채널(Omni-channel)은 기업이 온라인몰, 오프라인 매장, 모바일 앱, SNS, 콜센터 등 다양한 쇼핑 채널을 연계해 소비자가 어떤 채널을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매장 또는 브랜드를 이용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한 유통 전략이다. 기업은 이를 통해 고객 편의성 강화, 구매 전환율 증가, 브랜드 경험 일관성 확보 효과를 기대한다. 반면 시스템 구축 비용, 데이터 통합 난도, 채널 운영 복잡성 등이 주요 과제로 지적된다.

## 009. 듀프

듀프(Dupe)는 ‘복제품(Duplication)’에서 파생된 단어로, 명품이나 프리미엄 브랜드의 인기 제품과 유사한 품질이나 디자인을 갖추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대체품을 의미한다. 고물가와 경기 불황, 가성비 중시, 가치 소비 확산이 듀프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한편 듀프 제품은 상표권 침해 가능성, 품질 차이 등 법적·윤리적 고려가 필요하다.

## 010. 의무휴업

의무휴업제도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번(주로 격주 일요일) 문을 닫도록 규정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대형마트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는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꼴로 반드시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 011. 로보택시

로보택시(Robo-Taxi)는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무인 택시 서비스를 의미한다. 차량에 고도화된 센서, AI 기반 주행 소프트웨어, 실시간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장착해 운전자 없이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미국에서 테슬라와 구글 웨이모 등이 상용화에 나서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법규, 보험, 윤리적 책임, 안전 검증 등 제도적·기술적 과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 012. 앱테크

앱테크(App-tech)는 모바일 앱에서 만보기, 출석체크, 퀴즈, 게임, 설문조사, 광고 참여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면 현금이나 포인트 등 금전적 보상을 받는 재테크 방식이다. 최근 앱테크는 만보기 앱을 넘어, 모바일 금융, 쇼핑, 게임, 공부, 생활편의 앱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도 적극 도입하고 있다.

## 013. 폰지사기

폰지사기(Ponzi Scheme)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수익이나 배당금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 사기를 말한다. 실질적인 이윤 창출 없이 후발 투자자의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며, 투자금이 끊기면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합니다. 1920년 찰스 폰지(Charles Ponzi)가 운영한 사기에서 유래했으며, 최근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미술품, 보험, 채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폰지사기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 014. 다크팩토리

다크팩토리(Dark Factory)는 사람이 전혀 투입되지 않고 인공지능(AI), 자동화 로봇, 각종 센서 등 첨단 기술로만 가동되는 완전 자동화·무인화 공장을 의미한다. 조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인간의 개입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다크팩토리는 인력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생산 공정의 데이터 기반 최적화를 실현한다. 그러나 초기 구축 비용, 시스템 유지보수, 사이버보안 등 기술적·운영적 과제가 존재한다.

## 015. 프로슈머

프로슈머(Prosumer)는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소비자가 단순히 제품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품 개발, 마케팅, 유통 과정 등에 직접 참여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소비자가 직접 상품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기업이 이를 수용해 신제품을 개발하는 등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 016. 락인효과

락인 효과(Lock-in Effect)는 소비자나 사용자가 특정 서비스나 상품에 묶여 다른 경쟁사로 쉽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에서 유료 멤버십, 포인트, 구독 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이 계속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쿠팡의 '로켓와우'와 신세계의 '유니버스 클럽'은 회원이 비회원보다 약 30% 더 많이 구매하는 등 락인효과를 보이고 있다. 렌탈 서비스, 금융업계에서도 포인트, 무이자 할부, 맞춤형 서비스 등으로 고객 충성도를 높여 이탈을 방지한다.

## 017. 협동로봇

협동로봇은 기존 산업용 로봇과 달리 안전 펜스 없이 인간작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할 수 있을 만큼 안전성이 강화된 로봇이다. 협동로봇은 사람과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협업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협동로봇은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018.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데 활용되는 기준임금이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지침 개정에 따라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휴가비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 019. 감액배당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 같은 상법상 설정된 준비금을 줄이고 그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비과세배당이라고도 불린다. 일반 배당은 소득세 등을 내지만 감액배당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익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돈을 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 020. 이자보상배율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 021. C커머스

C커머스는 중국(China)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이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국내 시장에서 초저가형 제품으로 영역을 확대하며 국내 생산·유통업계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부가세 등 규제 형평성 문제와 모조품 유통 문제 등으로 정부와 업계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 022. 내구제 대출

내구제 대출은 급전이 필요하지만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자신의 명의로 전자기기(주로 휴대폰 등)를 할부로 구입한 뒤, 해당 기기를 불법 대부업자에게 넘기고 돈을 빌리는 불법 대출을 말한다.

## 023. 아트슈머

아트슈머(Artsumer)는 ‘예술(Art)’과 ‘소비자(Consumer)’를 합친 신조어로, 단순한 소비를 넘어 예술·문화적 경험과 만족을 추구하는 새로운 소비자층을 말한다. 이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미학적 경험, 문화적 가치, 예술적인 감성을 중시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백화점·마트·호텔 등에서 예술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편의점에서 예술 작품을 활용한 제품을 출시하는 등 아트슈머를 겨냥한 마케팅이 활발해지고 있다.

## 024. 디지털 사이니지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는 디스플레이에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실내 또는 실외에서 광고를 보여주는 디지털 미디어이다. 기존의 아날로그형 광고판인 간판, 안내 표시, 포스터 등을 디지털 모니터로 전환하여 보여주는 기술로, 일종의 전자간판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인쇄물이나 손글씨 광고물을 매장에 부착해야 했으나, 디지털 사이니지가 보급되면서 영상, 이미지, 텍스트 등 콘텐츠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 025. 에그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Egg-flation)은 계란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현상을 말한다. 계란 가격 상승의 원인은 산란계 고령화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염성 기관지염, 가금티푸스 등 질병 등이 있다. 계란은 케이크 등 제빵류, 마요네즈와 각종 소스, 냉동식품 등 가공식품의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 026.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기업이나 자산이 국제 기준에서 비슷한 수익성과 가치를 가진 다른 국가의 자산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저평가에는 한국 사회가 지닌 구조적·정치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남북 대치로 지속되는 안보 불안, 수출 중심 산업 구조, 경직된 노동시장 등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거론된다. 2024년 비상계엄 상황 역시 이러한 요인을 더욱 부각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 027. 그린워싱

그린워싱(Greenwashing)은 실제로는 환경에 큰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해를 끼치면서 겉보기에는 친환경적인 활동을 하는 것처럼 꾸미는 기업의 행위를 뜻한다. 예를 들어, 환경성치가 낮은 제품을 자연 이미지를 활용해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이 이미지 개선을 위해 친환경 캠페인만 강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028. 녹색 피로

녹색피로(Green Fatigue)는 환경 보호와 관련된 요구나 메시지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점차 지치거나 무관심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처음에는 기후 변화 대응, 친환경 소비, 탄소 감축처럼 사회적으로 강조되는 이슈에 공감하고 참여하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천 부담이 커지거나 변화가 체감되지 않으면 피로감과 무력감, 심지어 반감까지 나타날 수 있다. 이로 인해 환경 관련 캠페인이나 정책의 설득력과 참여 효과가 약화될 위험이 있다.

## 029. 보편 관세

보편 관세는 국가나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수입품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 제도를 뜻한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등이 강조하는 비차별 원칙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특정 국가에 특별한 혜택을 주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기 위해 마련된 규칙이다. 이러한 제도는 무역에서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자국 산업을 일정 부분 보호하는 동시에 국제 무역 환경에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 030. 상호 관세

상호 관세는 다른 나라가 자국 상품에 부과한 관세 수준이나 제공한 혜택에 맞춰 동일하게 대응하는 방식의 관세를 말한다. 즉,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쪽이 자국 제품에 낮은 관세를 적용하면 상대국도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국가 간 무역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일방적인 이득이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 031. CBDC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의미한다. 이는 실물 지폐와 동등한 효력과 신뢰성을 지니지만 전자적 방식으로만 존재하며 블록체인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운용된다. 민간이 만드는 암호화폐와 달리 국가가 직접 발행하고 관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CBDC는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결제 시스템의 효율을 개선하며, 불법 자금 흐름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 032. 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변동성이 큰 일반 암호화폐와 달리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주로 달러와 같은 법정통화나 금 같은 실물 자산 혹은 여러 자산으로 구성된 담보에 가치를 연동하여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송금 등에서 활용성이 높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교적 안전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된다.

## 033. 지역화폐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된 지급 수단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커뮤니티가 운영하는 일종의 지역 전용 화폐다. 일반 화폐와 1:1로 교환되거나 선할인 방식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이 지역 상권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확대하며 지역 경제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활용된다.

## 034. 제로노동

제로노동은 기술 발전과 자동화 확대로 인간의 노동 투입을 최소화하거나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생산·업무 방식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인공지능(AI), 로봇공학, 자동화 시스템 등이 반복적이거나 표준화된 작업을 대신 수행하면서 사람이 담당해야 할 노동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흐름은 기업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일자리 구조 변화, 노동 재교육 필요성, 고용 불안 등 사회·경제적 과제를 수반하기도 한다.

## 035. 리쇼어링

리쇼어링(Reshoring)은 기업이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해외로 이전했던 생산 시설이나 제조 활동을 다시 자국으로 되돌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공급망 안정, 일자리 창출, 경제 안보 강화 등 다양한 목적에서 추진되며 미국과 유럽 등 여러 선진 국가들은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와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적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다.

## 036. 식품사막

식품사막은 신선한 과일, 채소 등 신선한 식품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지역을 의미한다. 주로 슈퍼마켓과 같은 식료품 판매 시설이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심 외곽 및 농촌 지역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주민들이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에 의존하게 되어 영양 불균형, 비만, 만성질환 등의 건강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 건강과 식품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 037. 로코노미

로코노미(Local Economy)는 지역 단위에서 발생하는 경제 활동과 소비를 중심으로 형성된 경제 구조를 의미한다. 지역 특산물과 문화를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고 주민들이 이를 구매함으로써 지역 사업체가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는 순환 구조를 끌어낸다. 로코노미의 활성화는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 038. 초개인화

초개인화(Hyper-Personalization)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행동, 취향,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맞춤형 제품, 서비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단순한 개인화(Personalization)보다 한층 더 실시간으로 세밀하게 반응하여 소비자 경험과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마케팅, 금융, 헬스케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윤리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된다.

## 039. 밈주식

밈주식(Meme Stock)은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투자자들의 관심과 유행으로 급격히 가격이 변동하는 주식을 말한다. 기업의 실적이나 전통적 가치 평가보다는 인터넷 밈, 온라인 토론, 개인 투자자들의 집단행동에 의해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다. 투자자에게 단기적 수익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높은 변동성과 투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040. 사이드카

사이드카(Sidecar)는 선물시장에서 가격이 급등·급락할 때 프로그램 매매 거래를 일시 중단하거나 제한해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안전장치이다. 주가지수 선물의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급등하거나 급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되며 현물 주식의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제한해 투자자에게 대응 시간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장 혼란을 줄이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단기 투자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041. 심스와핑

심스와핑(SIM Swapping)은 범죄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자신의 SIM 카드로 불법으로 이전해, 번호를 기반으로 한 각종 인증 절차를 가로채는 신종 사이버 범죄 방식이다. 이동통신사를 속여 번호 이전이 이루어지면 2단계 인증용 문자나 전화가 모두 공격자에게 전달되어 금융계정·암호화폐 지갑·이메일 등 핵심 서비스에 무단으로 접근이 가능해진다. 이것들은 개인정보 탈취, 사회공학적 기법, 피싱 등의 범죄에 활용되며 피해자는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정이 탈취되거나 자산이 도난당할 위험에 노출된다.

## 042. 구독플레이션

구독플레이션은 구독 서비스 이용 증가가 가계 지출과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 소프트웨어 구독 등 다양한 월정액 서비스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구독 금액이 누적되어 실질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을 체감하게 되는 상황을 가리킨다.

## 043. 페이스테크

페이스테크(Face Tech)는 개인의 얼굴을 인식·분석하여 인증, 결제, 보안, 마케팅 등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말한다. 얼굴 이미지의 특징을 분석해 개인을 식별하거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 잠금 해제, 무인 결제, 출입 통제 시스템 등에 널리 사용된다. 편의성과 속도가 뛰어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안면 정보의 보안 문제 등과 관련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 044. 핀테크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신조어로 정보기술을 활용해 기존 금융 서비스를 혁신하거나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모바일 결제, 인터넷전문은행, 가상자산 거래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핀테크는 금융 서비스의 편의성, 접근성,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지만 동시에 보안 취약성과 규제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 045. 빅 테크

빅테크(Big Tech)는 미국 IT 산업을 선도하며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형 기술 기업들을 일컫는 용어이다. 구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대표적이며 플랫폼, 클라우드, 인공지능, 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혁신과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 시장 경쟁 공정성 등과 관련해 비판과 규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 046. 공유 경제

공유 경제는 개인이 소유한 유희 자원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과 나누어 활용도를 높이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자원 소유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며 에어비앤비, 우버, 타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경제 모델은 소유보다 접근을 중시하고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지만 전통 산업과의 갈등, 법적·제도적 논란, 노동 문제 등도 함께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경제에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평가받고 있다.

## 047. 탈중앙금융(DeFi)

탈중앙금융(DeFi, Decentralized Finance)은 은행이나 기존 금융기관과 같은 중앙 중개자 없이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금융 시스템을 말한다. 전통 금융과 달리 모든 거래와 계약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합의를 통해 자동으로 실행되며 중개 수수료를 줄이고 이용자의 자율성과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해킹, 가격 변동성, 규제 미비 등 위험 요소가 존재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 048. 피지컬AI

피지컬 AI(Physical AI)는 인공지능을 가상 공간이 아닌 현실 세계의 물리적 환경에서 직접 작동하도록 구현한 기술을 의미한다.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처럼 AI가 센서·모터·카메라 등을 통해 주변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해 움직이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반 AI보다 한 단계 확장된 개념으로 높은 효율성과 자동화를 기반으로 제조·물류·돌봄·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 049. 배드뱅크

배드뱅크(Bad Bank)는 일반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부실채권, 부실기업 대출 등)을 분리·인수하여 정리하는 목적으로 설립되는 특수 기관을 말한다. 은행의 건전성을 회복시키고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며, 부실자산을 모아 매각하거나 구조조정을 진행해 손실을 최소화한다. 이를 통해 기존 은행은 정상 영업에 집중할 수 있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 050. EPU 지수

EPU 지수(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는 경제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수치로 나타낸 지표이다. 신문 기사에서 ‘경제’, ‘정책’, ‘불확실성’ 등의 단어가 얼마나 자주 함께 등장하는지, 향후 세금·지출·규제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얼마나 큰지 등을 종합해 산출한다. EPU 지수가 높다는 것은 정부 정책 방향이 불명확하거나 예측이 어려워 기업 투자·가계 소비·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이 커졌다는 뜻이며, 낮은 지수는 정책 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임을 뜻한다.

## 052. 상생금융

상생금융은 금융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금융 약자들과 이익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금융 활동이다. 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대출 만기 연장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통해 금융 취약 계층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고금리 기조와 경기 둔화로 인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자, 정부와 금융 당국은 은행권에 적극적인 상생금융을 요구하며 사회적 공헌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 051. 초지능

인공일반지능(AGI)이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맞춤형 개발 없이도 해결 가능한 수준이라면, 초지능(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은 그다음 단계로써 추론이나 창의성, 감정 등 모든 분야에서 인간 전문가 수준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수준을 말한다. 초지능이 출현하면 인류가 이를 제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반면,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불치병이나 수명연장 기술을 초지능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 053. 웨이버

웨이버(Waiver)는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리나 주장을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계약 위반 사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동의하는 '채무 면제'나 '조건 유예'의 의미로 쓰인다. 석유화학산업의 불경기로 롯데케미칼이 원리금 상환 이전까지 유지해야하는 재무비율을 달성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채권단을 소집, 약정위반에 대한 처분의 일시적 적용유예를 요청한 바 있다.

## 054. 딥시크 쇼크

딥시크 쇼크는 중국의 AI 스타트업인 딥시크 AI(DeepSeek AI)가 자체 개발한 거대 언어 모델(LLM)을 오픈 소스로 공개하면서, 글로벌 AI 생태계 및 빅테크 기업들에 가해진 충격을 말한다. 딥시크 모델은 특히 추론 및 코딩 능력 부문에서 저성능의 AI가속기로도 기존의 선두 모델들과 대등하거나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으며, 이는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고성능 모델의 무료 배포는 후발 주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지만, 막대한 연구 개발비를 투자해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해 온 주요 기업들에는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강력한 경쟁 압력을 주고 있다.

## 056. 오픈 이노베이션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이 혁신을 위해 내부의 자원과 지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의 아이디어, 기술, 인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경영 전략이다. 기업 외부의 스타트업,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하거나 기술 제휴,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혁신 속도를 높이고 새로운 시장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기술 융합과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생존과 성장을 위해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이 필수적인 경영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 055. 밸류업 지수

밸류업 지수는 한국거래소(KRX)가 2024년 9월에 발표한 주가지수이다. 한국거래소가 국내 주식의 저평가 상황을 극복하고자 시작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주환원과 자본 효율성이 우수한 기업들을 선정해 이들의 주가를 반영한 지수를 공표한 것이다. 해당 지수에 포함된 기업은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나 ETF의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어 주주환원정책이나 PBR, ROE 등을 개선할 추가적인 유인으로 작용한다.

## 057. 전력망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속칭 전력망 특별법은 송·변전 전력망 개발 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원의 일부 지역 집중이 심화되고 있지만, 해당 지역의 전력수요가 발전량에 미치지 못해 다른 발전원의 출력을 줄여야 하는 등 전력 계통의 불안정이 커져 문제가 되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타지역으로 보내는 송전시설을 확보해야 하지만, 낮은 주민 수용성으로 인해 진척이 난항에 처해있는 상태였다. 전력망 특별법으로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주민보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058. 율드

율드(YOLD: Young Old)는 은퇴 후에도 경제력과 건강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즐기는 50~60대 초반의 젊은 노년층을 지칭하는 신조어이다. 이들은 기존 노년층과 달리 디지털 기기 사용에 능숙하고, 자기계발과 취미 생활, 여행, 소비 등에서 높은 활동성과 구매력을 보여 새로운 소비 시장의 주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 059. 브로드컴

브로드컴(Broadcom)은 네트워크 인프라, 소프트웨어, 반도체 솔루션 등을 공급하는 글로벌 통신 및 IT 인프라 기술 기업이다. 데이터 센터, 통신망,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I 시대에 필수적인 고성능 네트워킹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어 주요 빅테크 기업 및 AI 산업의 핵심 파트너로 주목받으며 'AI5'에 포함된 바 있다.

## 060. 소프트웨어 중심공장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은 생산 설비와 공정 전체가 유연하고 지능적인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미래형 제조 시스템을 의미한다. 제조 라인의 물리적 변화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새로운 제품 생산이나 공정 최적화가 가능해, 생산 효율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현대·기아 자동차는 '이포레스트'라는 스마트공장브랜드를 발표하였으며,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산업 전체를 고도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061. 인텔

인텔은 70년대 마이크로프로세서 개발에 앞장서며 x86 아키텍처로 8086, 펜티엄 등으로 PC CPU 시장의 강자로 군림해 왔다. 그러나 경쟁우위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줄이는 등 미래 경쟁력 확보를 등한시했고, 이는 AMD와 같은 경쟁자가 재기할 기회로 작용했다. 최근 인텔은 엔비디아에 밀려 다우존스30에서 퇴출되는 수모를 겪었으나,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의 국가 안보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텔 지분의 10%를 확보함에 따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의 반동을 노리고 있다.

## 062. 영케어러

영케어러(Young Carer)는 신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맡는 13~34세 청년 인구를 뜻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영케어러가 1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취업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높은 비율로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초고령 사회에 있어 영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063. 데드 캣 바운스

데드 캣 바운스(Dead Cat Bounce)는 주식 시장에서 오랜 기간 폭락하던 주가가 일시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보이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용어이다. 이는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전환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빠진 것에 대한 단기적인 되돌림 현상이거나 공매도 청산(숏 커버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약세장(베어 마켓)에서 나타나며, 투자자들이 추세가 전환되었다는 착각을 하고 진입했다가 다시 하락하여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 065. 환율관찰대상국

환율관찰대상국은 미국 재무부가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외환시장 개입 여부 등을 면밀히 관찰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미국은 자국의 교역 촉진 및 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해 특정 기준(대미 무역 흑자 규모, 경상수지 흑자 규모, 외환시장 개입 정도)을 충족하는 국가를 '심층분석 대상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여 보고서를 발표한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외환 정책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국제 무역 환경과 환율 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주요 지표가 된다.

## 064.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는 구글이 사용자 개인의 웹 활동 기록(쿠키)을 추적하지 않으면서도, 광고주가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 중인 새로운 기술 표준 및 시스템이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규제 환경과 웹 브라우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사용자의 웹 이용 정보를 그룹화하여 익명성을 보장하며 맞춤형 광고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을 추구한다. 광고 생태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주요 기술로 주목받으며, 현재 글로벌 표준 도입을 위해 시범 운영 및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

## 066. 경기대응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경기 확장국면에서 신용수축에 대비해 추가 자본을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이 0~2.5% 범위에서 추가 자본을 적립해둔 상태에서 신용경색이 발생하면 금융당국이 자본 적립의무를 완화한다. 이때 은행은 적립해두었던 자본을 사용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2024년 5월부터 적용되었으나, 환율 급등으로 은행권이 자본비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자 적립수준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

## 067. 한국무위험지표금리

무위험지표금리(Risk Free Reference Rate)는 투자자가 신용리스크 없이 얻을 수 있는 최소 수익률이다. LIBOR금리 조작 사건으로 인해 기존의 금융지표가 신뢰를 상실하면서 개발된 대체지표금리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KOFR)를 개발한 바 있다. KOFR는 국채·통안증권을 담보로 하는 익일물 RP금리를 기반으로 산출되며, 다양한 금융상품의 가격 책정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068. 리츠(REITs)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 매매 차익 등을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다. 주식처럼 쉽게 사고팔 수 있어 소액으로도 대형 상업용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코스피200 지수에 리츠를 포함시키는 방안 및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 069. 시위싱

시위싱은 기업이나 기관이 실제로는 미미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허위로 홍보하여, 자사의 이미지나 제품/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려는 행위를 뜻한다. 인공지능이 고객들의 쇼핑카트를 확인해 자동으로 결제하는 무인매장을 표방했던 ‘아마존고’에서 실재론 사람이 카메라로 물건을 확인하는 것이나, 단순 센서가 탑재된 전통치술을 시치술로 과장 광고한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 070. 북클로징

북클로징(Book Closing)은 금융 기관이나 기업이 정기적인 회계 기간(예: 분기, 반기, 연말)이 끝날 때, 해당 기간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확정하고 장부를 마감하는 절차를 뜻한다. 금융 시장에서는 특히 연말이나 분기 말에 펀드나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성과를 확정 짓고 장부를 정리하는 시기를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주식이나 채권 시장의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 07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직장에서 사망 혹은 심각한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을 때, 기업 경영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받게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최근 건설현장이나 제빵공장, 발전소 등에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되고 있다.

## 072. 그리드 패리티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는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발전비용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원가가 같아지는 시점을 말한다. 이 시점에 다르면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경제성을 갖추게 돼 전력시장에서 점유율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태양광, 풍력 등에서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은 지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한국의 경우 아직 요원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073. 슈퍼을

슈퍼을은 계약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갑'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업에 필수적인 존재로 기능하여 사실상 '갑'보다 더 큰 힘을 가지는 '을'을 의미한다.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ASML이 대표적이다. 산업부는 소부장 기업을 글로벌 슈퍼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074. 데카콘

데카콘(Decacorn)은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약 13조 원)를 초과하는 비상장 스타트업을 일컫는 용어이다.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보다 10배 큰 규모를 가지며, 압도적인 혁신 기술이나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최근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가 창업한지 3년만에 기업가치 100억 달러를 넘겨 화제가 되었다.

## 075. 요노족

요노(YONO)는 “You Only Need One”의 약자로,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고 불필요한 물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출을 줄이는 소비행태를 뜻한다.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인 옐로(YOLO)의 반대 개념이다. 팬데믹 이후 ‘인생은 한번 뿐’을 모토로 사치스러운 소비가 유행했다면, 고인플레이션과 고용시장 둔화, 코로나 시기의 저축 고갈 등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076. 임베디드 금융

임베디드 금융(Embedded Finance)은 비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중개·재판매하는 것을 넘어 자사 플랫폼에 핀테크 기능을 내재화(Embed)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의 모바일 앱(사이렌오더)과 선불카드 결제, 현대차 그룹의 차량 내 간편 결제 서비스 등이 있다.

## 077. 신파일러

신파일러(Thin Filer)는 “얇은 파일”이라는 뜻으로 금융거래 정보가 거의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최근 2년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없고 3년간 대출 실적이 없는 이들로 주로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전업주부, 은퇴자 등이 해당한다. 신파일러들은 신용점수가 낮기 때문에 신용거래 같은 금융서비스 이용에 있어 제한을 받아 금융소외계층으로 분류된다.

## 078. 온보딩

온보딩(Onboarding)은 배에 올라탄다는 뜻으로 신규 입사자가 조직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을 말한다. 온보딩의 성공은 입사한 직원이 회사와 문화에 대한 높은 호감도를 가지고 조직에 적응함으로써 업무 능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퇴사율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 079. 캐즘

캐즘(Chasm)은 첨단 기술 제품이 소수의 혁신적 성향의 소비자들이 지배하는 초기 시장에서 일반인들이 널리 사용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하거나 후퇴하는 현상이다. 원래 지리학적으로 지각 변동에 의해서 생기는 균열로 인한 단절을 의미한다. 가령 전기차 캐즘이 장기화하면서 국내 배터리 ‘빅3’ 기업의 차입금이 계속 늘어나는 반면, 공장 가동률은 떨어지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한다.

## 080. 포모(FOMO)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 증후군’은 남들은 다 하는 것 같은데 나만 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심리적 불안감이나 두려움, 조바심을 의미한다. “남들은 다 아파트에 투자해서 자산을 늘리는데 나도 해야 하나?” “남들은 다 주식 투자를 해서 재미를 보고 있는데 나는 뭐 하는 거지?”와 같은 생각들이 확산하면서, 포모 증후군에 이끌려 빚을 내서라도 대세에 합류하려는 ‘영끌’과 ‘빚투’가 생겨난다.

## 081. 대체거래소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한국거래소(KRX) 외에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다른 시장을 의미한다. “넥스트레이드(NEXTRADE)”라는 이름으로 2025년 3월 4일 국내 최초로 출범했다. 주식거래 시간이 늘어나고, 새로운 거래주문 방식 추가되어 투자자들의 투자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082. 핀플루언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개인 투자자에 대한 핀플루언서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면서 투자 피해 등의 위험성이 확대되자 해외 주요국의 금융당국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핀플루언서는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식 거래, 부동산 투자 등 금융 관련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 083. 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선임할 이사 수를 곱한 만큼의 투표권을 특정 후보에게 집중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액주주가 이사회에 자신들이 선호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여 대주주의 독단을 견제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025년 8월 상법개정에 따라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집중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 084. 리워드 소비

리워드 소비는 소비 패턴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액체처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소비를 말한다. 최근 소비자들은 소유보다 경험과 실용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다양한 선택지를 통해 개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리워드 소비는 공유 경제, 가치소비 등 소비트렌드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다.



## 085. 솔로프러너

솔로프러너(Solopreneur)는 ‘혼자(Solo)’와 ‘기업가(Entrepreneur)’의 합성어로 직원 없이 혼자서 모든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1인 창업자를 의미한다. 기획, 마케팅, 운영 등 경영의 전 과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프리랜서와 달리 자신만의 브랜드나 제품, 서비스를 구축해 사업을 영위한다. 디지털 플랫폼의 발달로 콘텐츠 제작자, 온라인 판매자, 컨설턴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 086. 깃 워커

깃 워커(Gig Worker)는 정규직이 아닌 단기 계약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사람이다. ‘깃(Gig)’이라는 단어는 1920년대 미국에서 음악가나 연극배우를 단기 계약으로 섭외해 공연한 데서 유래되었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공유 경제가 확산되면서 특정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업무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깃 워커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 087. 레버리지 ETF

일반 ETF가 코스피200과 같은 지수 내 대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지수와 비슷한 수익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데 비해 레버리지ETF는 파생상품에 투자해 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ETF다. 상승장에서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도 커져 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 분류된다.

## 088. 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의 약어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정치 슬로건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에 '조선업(Shipbuilding)'을 결합하여 만든 상징적인 명칭이다.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조선업 협력 구상을 의미한다.

## 089. COFIX

8개 주요 은행들의 주요 수신 상품 금리를 은행연합회가 매달 가중평균 해 구하는 것으로 시중은행들이 대출해 줄 자금을 조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은행권 주책 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된다.

## 090. 인오가닉 방식

인오가닉 방식(Inorganic Growth Strategy)은 인수합병(M&A), 지분 투자, 전략적 제휴 등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현재 사업 내에서 내부 역량을 키워 성장하는 유기적 방식(Organic Growth)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 091. 모험자본

모험자본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투자자의 자본을 말한다. 향후 성장 잠재력을 믿고 덜 성숙한 기업에 투자한다는 의미에서 위험 자본(Risk Capital)이라고도 부른다.

## 092. 게이미피케이션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은 웹이나 모바일 사이트처럼 게임이 아닌 애플리케이션에 게임 요소를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캐나다 RBC은행이 용돈 관리앱 마이도(Mydoh)에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하여 자녀가 재미와 성취감을 느끼며 저축습관을 형성하도록 한 것이 그 사례다.

## 093. 헬시플레저

헬시플레저는 '건강한(Healthy)'과 '기쁨(Pleasure)'의 합성어로, 즐겁게 하는 건강관리를 의미한다. 경험과 공유, 재미요소를 중시하는 MZ세대의 특성이 건강관리의 패러다임을 인내와 절제에서 즐거움과 편리함으로 변화시켰다.

## 094. 포이즌필

포이즌 필(Poison Pill)은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가 사용하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다. 특정 주주(인수 시도자)의 지분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기존 주주들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인수 시도자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고 인수를 어렵게 만드는 전략이다.

## 095. 음의 복리효과

음의 복리효과는 투자 자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성을 겪으면서 작은 손실이 계속해서 누적되어 자산 가치가 크게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특히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 상품에 장기 투자할 때 나타나기 쉬우며, 수익률을 갉아먹어 시간이 갈수록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 096. 마이크로소프트

근무 시간을 하루 6시간 이하로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학업이나 육아 등 다양한 일상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근무 형태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경제적 위기와 돌봄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요가 늘었다. 노동자에게는 워라벨을, 고용주에게는 고용의 유연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상호 간에 이점이 있다.

## 097. 베타세대

베타 세대(Generation Beta)는 2025년부터 2039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며, 알파 세대의 뒤를 잇는 새로운 인구 집단이다. 미래학자 마크 맥크린들이 제안한 용어로, 인공지능(AI)이 일상화된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들은 디지털과 물리적 세계의 경계가 모호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AI를 모국어처럼 사용하고 가상과 현실을 통합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098. 디토소비

디토 소비는 '나도' 또는 '마찬가지로'를 뜻하는 라틴어 디토(Ditto)에서 유래한 것으로, 자신과 취향이나 가치관이 같은 특정 인물, 콘텐츠, 커머스 채널을 따라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 트렌드를 의미한다. 이는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단순화하고 실패 확률을 낮추기 위한 소비 행태로, 유명인의 추천 제품, 웹툰 속 패션, 인기 있는 음식점 등을 구매하거나 방문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 100.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아이디어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워드형'과 주식이나 부채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형'으로 나뉘며, 성공할 경우 투자금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제품을 받게 된다.

## 099. 카피캣

카피캣은 시장 내 선두주자의 제품이나 브랜드 등을 모방함으로써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기업은 카피캣 전략을 통해 시장 내 선두주자가 확립해 놓은 브랜드 자산의 이점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다.